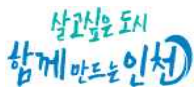



|  | | 보 도 자 료 | | 수도권매립지 종료  |
|---|--------------|--|---|---|
| 배포일자 | | 2021년 8월 16일(월) 총 8매 | | |
| 담당 부서 | 항 공 과 | 담당자 | • 항공산업팀장 이상욱 ☎440-4806 • 담당자 장경선 ☎440-4808 | |
| 담당 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 공보지원협력관 신상학 ☎440-3318 | |
| 사 진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보 도 일 시 | |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십시오. | | |

인천 항공산업 “날개 달았다”

‘바이오 산업’ 과 함께 인천 미래 먹거리 견인 기대

- 정부, 인천공항에 해외 복합 항공정비(MRO) 업체 유치 등 지원키로

- 인천 항공산업, 이번 정부 방침 계기로 추진 동력 가시화

- 항공산업 활성화 될 경우 추진중인 바이오산업과 함께 인천 경제성장 주도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 해외 복합 항공정비(MRO) 업체 유치 등을 집중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추진 중인 MRO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인천 항공산업*’ 에도 큰 탄력이 예상된다.

* 항공정비산업, 도심항공교통산업, 드론산업

인천 항공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앞서 추진되고 있는 ‘인천 바이오 산업’ 과 함께 인천은 미래먹거리의 양 날개를 갖추게 된다. 인천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동력이 마련되는 것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를 통해 인천을 복합항공정비사업 분야에 대해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4대 전략 13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MRO 클러스터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MRO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기업 유치 등에 주력하고 있다. 민선7기 첫해인 2018년부터 이스라엘의 IAI사의 항공기 개조사업 유치를 추진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시는 또 미국 화물항공사의 중정비 아시아 허브, 대한항공의 통합 항공기 엔진 정비클러스터 유치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인천을 글로벌 고부가가치 항공정비 중심으로 대전환시키는 사업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다. 관련 사업들이 본격 시행되는 2025년에는 인천이 아시아 제1의 항공정비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이번 정부 방침을 계기로 ‘인천 항공산업’ 을 집중 육성, ‘바이오 산업’ 과 함께 인천 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천의 산업구조의 중심 뿌리산업인 제조업(자동차 중심)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 고도화와 사업 다각화’ 를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항공산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 제조업내 자동차산업비중 : (‘07)19.5% ▶ (‘13)17.8% ▶ (‘19)14.0%)

** 부가가치(항공산업 12.2%, 전체 제조업 평균 4.6%), 고용창출 제조업 대비 5배

특히, 자동차산업과 항공산업이 융복합하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체계에 대한 도시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UAM 상용화 시기인 202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UAM을 활용하는 도시로 발전시켜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첨단 항공산업이 뿌리산업을 견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인천의 도심 하늘길을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천형 도심항공교통(UAM)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이로 플레인*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활용한 UAM 비행체 개발업체인 미국의 스카이웍스 에어로노틱스와 UAM용 배터리를 개발하는 모비우스 에너지 컨소시엄과 국내의 대한항공 등이 “인천형 UAM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증비행과 상용화 시험을 인천에서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공기력의 작용에 의하여 회전하는 회전익(回轉翼)으로 양력(揚力)을 얻고, 프로펠러에 의해 추진력을 얻는 회전익 항공기.

시는 또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인력 육성 및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고용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인 항공산업의 특징을 활용, 인천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미취업자와 재직자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기술 교육을 2021년부터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270여명의 항공산업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을 제외한 670여명의 교육 훈련이 청년 교육으로, 정부가 이번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2만3천명 일자리 증대 계획을 인천의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가 지원할 전망이다.

또한 미래의 청년인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인천시 교육청과 항공우주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항공정비, 도심항공교통, 우주산업에 이르는 384명의 청년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의

정석항공고등학교와 한국폴리텍 항공정비특화캠퍼스(남인천캠퍼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UAM 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9~11월까지 미국 LA와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유치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정부 결정으로 인천은 MRO를 비롯한 항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인천 항공산업을 바이오산업과 함께 인천 미래먹거리의 두 축으로 삼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도시 인천, 일자리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자료

참고 1

정부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개요

□ **정부발표** :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 **의결내용** :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관계부처합동)

- (그간의 문제점) ① 높은 해외 위탁정비율(56%) ② 취약한 가격경쟁력 ③ 핵심기술 부족(상용화 저조) ④ 전문인력·인증체계 기반 미비
- (4대 육성전략) ①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② 가격경쟁력 확보 ③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④ MRO 산업 성장 기반 조성
- (기대효과) 시장확대(0.7조원⇒5조원), 국내정비율 확대(44%⇒70%), 일자리 창출(0.7만명⇒2.3만명)

□ **인천시 정책 반영 현황** : 6개 정책 반영

| 구 분 | 정부발표 | 인천시 사업(현재) |
|----------|--|---|
| MRO 물량확대 | ① 정비 물량 확보 지원, ② 軍 정비물량 민수전환, ③ 국산헬기 정비 수요 확보 | ① 정비물량확보 : IAI 항공기 개조사업, 미국 ATLAS 화물기 중정비, 대한항공 엔진정비센터 유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항공정비 유치 |
| 가격경쟁력 확보 | ④ 항공부품 관세 부담 완화 ⑤ 정비부품 비용 절감(상용화 인증) ⑥ 금융지원 | ⑤ 정비부품 비용 절감(인증지원) : 항공선도기업 글로벌 인증지원사업 : 항공정비 공용장비·부품센터 구축 |
| MRO 역량강화 | ⑦ 핵심기술 로드맵 ⑧ R&D 상용화 강화 ⑨ 기술획득(국제공동개발) ⑩ 드론활용 정비 | ⑧ R&D 상용화 강화 : 항공기 부품 개발 및 국제 인증지원 사업(민항기 브레이크 패드) |
| 성장기반 조성 | ⑪ 지역별 MRO 클러스터 육성 ⑫ 인증기반 구축(고효 비행종합시험장) ⑬ 항공정비 인력 양성 | ⑪ 지역별 MRO 클러스터 육성 :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 ⑬ 항공정비 인력 양성 : 인천형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 훈련 사업 |

* ⑧ R&D 상용화 사업 중 부품개발과 인증기술 연계 사업과 ⑬ 항공정비 인력 양성 사업 중 현장연계 교육 확대 사업은 100% 인천시 사업

□ 발표의 의의

- (항공정비산업 집중육성) 항공정비 분야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초로 관계부처 합동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 의지 발표
- (경남과의 관계 정리) 경남(사천)의 역지 논란(청와대 청원, 감사원 공익감사)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정부 입장 발표 * 인천시 입정(상생협력) 반영

< 발표 내용 >

- (MRO클러스터 조성 지원) 지역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MRO 클러스터 간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 지원
 - * 사천공항은 기체중정비·군수,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 등
- 정부·지자체·공항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21.11)하여 지역간 이견 조정, 상생방안' 논의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우리시 정책 반영) 해외 외주 물량 내수화, 국산부품 상용화(인증지원), 부품개발 및 인증 지원, 교육훈련 확대 등 13개 주요 정책 중 6개 정책 반영

□ 향후추진방안 : 항공정비 및 교육훈련 아시아허브 육성

- (글로벌 연구소 및 기업 유치) 에어버스, GE 등 항공관련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와 IAI, ATLAS, 대한항공 등의 항공정비개조 기업 유치(합작법인 등)
- (기업생태계 조성) 인천관내 기업 중 항공부품 전환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추진 ⇒ 기술+인증+인력전환교육+수요처(절충교역 등) 통합
 - * 인천시 뿌리산업, 자동차 산업 기업의 사업 다각화 지원 및 관내 기업과 합작 기업 유치
-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훈련체계 구축) 항공기 수리·개조에 필요한 초급 및 전문 인력 양성 ⇒ 항공우주마이스터고 설립(초급인력), 인천공항내 항공산업 전문교육훈련센터* 설립(전문인력)
 - * (대상건축물) 인천공항내 제4단계 건설 홍보센터를 전환(지상 2층 건물)

- ※ ① 인천광역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별도로 항공산업 부문 반영
- ② 2022년 항공산업분야 사업비(인천시 예산의 0.2% 수준/약 240억원) 확보

참고 2 인천형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사업

비전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도시 INCHEON

단계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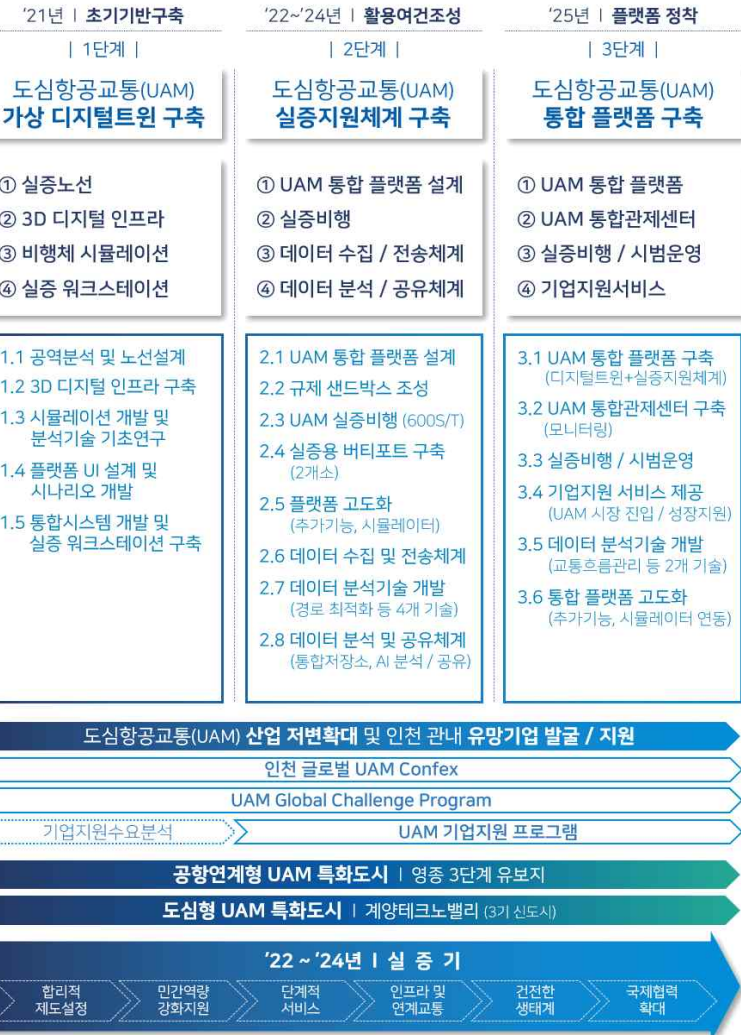
추진중점

세부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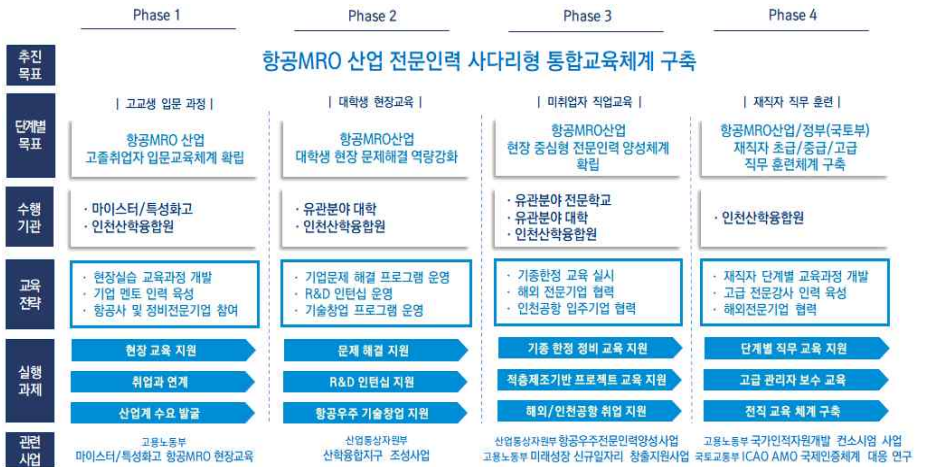
육성 및
지원과제

특화도시

국가정책



참고 3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 훈련 체계



<인천 항공산업 인력 양성 계획>

| 구 분 | 2021 | 2022 | 2023 | 계 |
|----------------------------|-------|-------|-------|-------|
| 고교생 전문인력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50 | 50 | 50 | 150 |
| 미취업자 전문인력 (한국폴리텍포함) | 90 | 90 | 90 | 270 |
| 재직자 전문인력 | 600 | 600 | 600 | 1800 |
| 소 계 | 740 | 740 | 740 | 2,220 |
| 대학과정 (인천산학융합지구 항공우주산업과) | 530 | 530 | 530 | 1,590 |
| 합 계 | 1,270 | 1,270 | 1,270 | 3,810 |